

[두산아트스쿨: 미술]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II (정윤아)

10/20 2강 폰타나: 우주의 블랙홀을 품다

1) 공간주의(空間主義, Spazialismo)

공간주의의 시대적 배경과 의미

시기: 1946 년경 시작(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발생 시기와 유사)

주요 작가: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1899-1968)

- 이태리 미술가 루치오 폰타나에 의해 시작된 미술 운동
- 194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폰타나가 그의 학생들과 함께 ‘백색 선언’ 발표
- 이 선언문에서 추상과 구상에서 모두 벗어나 미학, 합리주의, 형식주의를 공격하면서 공간주의(Spazialismo)라 불리는 자신만의 ‘공간 개념’ 공표
- 공간주의가 추구하는 미술은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4차원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네온과 같은 재료를 사용한 작품 발표
- 새로운 예술 발전의 구체화를 위하여 그 사상적인 개념으로 공간주의를 표방
- 1947년 밀라노에서 뜻을 같이하는 작가들 모아 그룹을 결성하여 ‘공간 선언(Manifesto Spaziale)’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공간주의 활동 시작
- 기존의 전통적 미학을 타파하고 시간과 공간의 통일에 입각한 새로운 예술의 발전을 주장

추상

+

미래주의(과학, 테크놀로지 예찬·수용/미술에 움직임 도입/시간 개념 도입)

+

다다이즘

- 일상용품을 미술 재료로 사용
- 미술을 통해 자신의 환경 반영(미술과 삶의 통합)
- 삶의 우연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 강조

2) 공간 개념(Concetto spaziale, Spatial concept)이란?

폰타나는 회화가 현실 세계와 가지는 괴리감을 극복하고 회화와 조각을 구분하는 고전적인 구별의 의미를 제거하여 새로운 미학적 범주를 창조하기 위하여 공간개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한다. 회화와 같은 평면(2차원) 작업에 구멍을 뚫은 단순한 행위를 통해 공간(3차원)을 암시하게 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이와 같이 평면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부치(buchi)’라 명명하고 부치를 통한 공간감의 획득을 설명하기 위해 ‘공간 개념’이라는 명칭을 붙인다. 이후 이 공간개념을 조각에도 적용, 확장하고 건축, 조각, 회화의 경계를 지우는 독특한 작업을 전개해 나간다. 이는 폰타나가 말한 내용을 작품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I do not want to make a painting. I want to open up space ... create a new dimension tie in the cosmos as it endlessly expands beyond the confining plane of the picture.”

“나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간을 열고 싶은 것이다 ... 회화의 닫힌 평면 너머로 끝없이 확장하듯이 우주와 연결된 새로운 차원을 창조하고 싶다.”

<공간 개념> 연작의 시기별 구분

1949-68: 캔버스에 구멍을 내는 ‘부치(buchi/holes)’ 연작

1951-58: 구멍 난 캔버스에 가짜 보석을 부착하는 ‘피에트레(pietre/stone)’ 연작

1958-68: 캔버스를 날카롭게 베는 ‘타글리(tagli/cuts)’ 연작

1963-64: 타원형 캔버스에 키치적인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는 ‘신의 죽음(La fine di Dio/The End of God)’ 연작

3)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1899~1968) 미술의 중요성

1958년부터 시작하여 타계 직전까지 10년간 지속한 타글리 회화 작품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그 이전 조각이나 초기 부치 회화 작품들이 미술사에서는 타글리 작품만큼이나 중요하다 볼 수 있다.

- 고급 미술(추상 추구), 저급 미술(싸구려 색채, 가짜 보석 사용 등 키치적 요소 수용)의 구분을 허무는 데에 중대한 역할
- 건축, 조각, 회화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무는 데에 중대한 역할
- 회화에 현실 세계의 공간을 도입한 최초의 작업 창조
- 후배 작가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